

지역 소식통

심덕섭 고창군수, 추석 맞이 외국인계절근로자 위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추석을 앞두고 낯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찾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6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대신면 관대리의 멜론수확 현장을 찾아 캄보디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덕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고창농촌 지역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앞서 고창군은 국내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쉼터를 마련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설치됐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

부안군과 전북연구원은 지난 26일, 부안군 5층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군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전북연구원 연구진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각의 사업에 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안건으로 다룬 현안사업은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부안지역 산업·연구용지 확대 추진 △변산 명비치 파크 조성사업 △K-김치 클러스터 조성 △낙시 복합 터운 조성사업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등 6개 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군과 전북연구원 간 소통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명절 종합대책 추진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정읍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재난재해, 의료·방역, 물가·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총 7개 분야에 1일 11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2~4등급)됨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환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진료 기관 1개소, 당직의료기관 63개소,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42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42개소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청·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서비스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AI·아프리카페지컬링·구제역 등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주변 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별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봉쇄초소를 운영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높아진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과 전통시장 장보기, 추석 맞이 편의점·저가점 운영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대책을 운영하고 정읍역 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58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읍=김대환기자

평생교육체제 토대 구축

정읍시, 전북과학대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전북과학대학교(총장 이영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해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전북과학대는 지역기반 직업 평생교육 고도화를 위해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교류를 통해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평생교육 체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장부처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양 기관의 역량 결집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운영 △평생교육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기반 조성 △지역주민 맞춤형 취·창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협력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 교육으로 한계가 있어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대학의 평생교육 서비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붉게 물든 곱소마을로 초대! 젓갈 한번 맛보실 가을?'

제15회 부안 곱소젓갈축제 성공개최 준비 박차

'붉게 물든 곱소마을로 초대! 젓갈 한번 맛보실 가을'이란 주제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15회 부안 곱소젓갈축제가 곱소마을도 부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지난 9월 25일 곱소젓갈협회 회원과 진서면 이장 협의회에서는 곱소젓갈축제 성공 기원과 함께 곱소마을로 전국 관광객들을 초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관광객 초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축제의 구성은 곱소마을도 부지 일원서 한들가라는 코스모스 꽃향기가 가득한 바닷가 무대를 배경으로 공식행사, 연예공연, 체험마당, 경연행사, 먹거리 마당,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 특별 이벤트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곱소젓갈축제 판매장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곱소젓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곱소



젓갈 특별할인(20%) 행사 및 짝꿍 경매도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과 함께 곱소젓갈 김치 담그기, 가을 전어잡기, 생새우로 새우젓 담그기, 먹거리 마당

에는 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 곱소젓갈 앤 워크숍 막걸리 곱소젓갈 도시락 등 입맛을 돋궈줄 다채로운 먹거리가 준비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일상 속에서도 젓갈에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곱소젓갈의 이야기를 녹여내고자 한다. 명란젓갈 파스타 등 젓갈 콜라보 요리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젓갈에 현대인의 트렌드를 접목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고장관심을 탈피하여 젊은 층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색소금 만들기, 까나리 도전 북북북, 나는야 골프왕 흥인흥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 준비되어있다.

밤에는 낮과는 또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불꽃놀이, 나만의 소원풍등 날리기, 곱소낭만 캠핑, 캠프파이어 등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기쁨을 선사하고자 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6일 민중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창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물가상승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되었다.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임정호 의장과 의원, 그리고 직원 30여명은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어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군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호 의장은 "관내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이용하는 것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사용 부서별 추석맞이 장보기 추진

전북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창시장 등 관내 6개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장보기 행사는 군 공무원과 유관 단체들이 대목장의 혼잡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 부서별로 분산해 자율적으로 진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식당 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추석 제수 품목 가격동향 파악과 물가 지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주요품목 가격표시제와 불공정거래행위도 지도·점검한다.

또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방역과 환경정비를 병행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고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

는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추석맞이 장보기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올추석에는 은누리상품권과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점에서 알뜰하게 소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추석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6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인 바다의향기, 변산어울림주간보호센터,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등 3곳을 방문해 쌀 60포(10kg들이)를 전달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



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